

# 죽음의 날



프리히스패닉 이전 시대에 죽음의 숭배는 문화의 기본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. 누군가 죽으면 그들은 페타테에 싸여 묻히고 친척들은 믹틀란으로의 여행을 안내하기 위해 파티를 조직했습니다. 그리고 그들은 그가 배고플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가 인생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배치했습니다.



이 죽은 자의 날 축제에서 죽음은 부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냅니다. 죽음은 제단에서 구체화되는 삶의 상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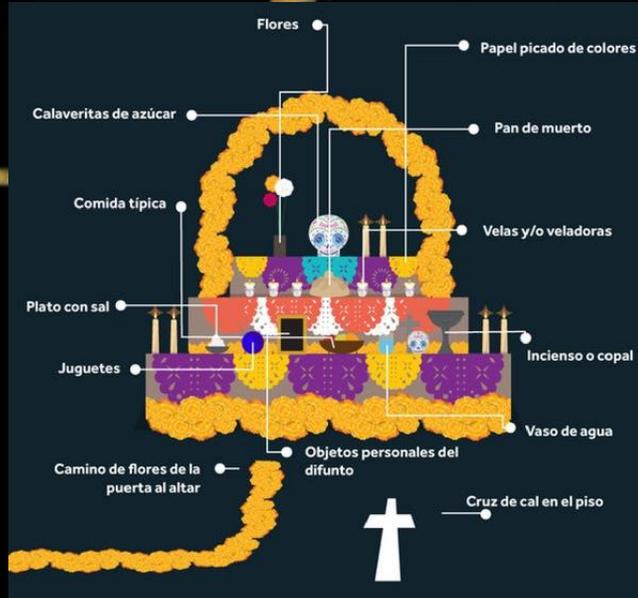
망자의 날 기념식은 11 월 1 일과 2 일에 열리며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뉩니다.

11 월 1 일은 "작은 죽은 자" 또는 어린이를 위한 날인 모든 성도에 해당하고, 11 월 2 일은 충실한 고인, 즉 성인을 위한 날입니다.



매년 많은 가족들이 장식된 제단을 썬파수칠 꽃, 다진 종이, 설탕 두개골, 죽은 자의 빵, 몰레 또는 사망한 사람은 제일 좋아했던 요리.

# 제단의 요소



- ✓ 고인의 사진.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화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입니다.
- ✓ 향 또는 코팔. 코팔이나 향기 내뿜는 연기는 우리의 죽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후각적 길잡이가 된다.
- ✓ 양초. 이들은 불과 빛을 나타냅니다.
- ✓ 고인이 좋아하는 음료수와 물
- ✓ 설편과수철 꽃. 그들은 죽은 자의 영혼을 인도하는 길을 만들거나 단순히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.
- ✓ 작은 두개골. 각 두개골은 고인을 나타냅니다
- ✓ 죽은 빵. 죽은 자의 빵은 고인은 자의 해골을 상징합니다.

작가 마리오 베네데티가 말했듯이:

“죽음은 삶이 있었다는 징후에 불과합니다.”